

## 인구 이동과 정주여건으로 본 지역 인구정책의 재설계

### - 보사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제43회 인구포럼 공동 개최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후원해
- 총 2개 분야와 총 7개 주제로 구성·진행...▲사람의 이동과 정주: 인구이동 및 정주 실태조사 결과 ▲기업이 오면 사람이 오는가: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정주의 조건
- 신영석 원장, “지역 일자리를 늘리고 머물게 하려면 체감형 정주 여건에 대한 이해 중요...정주 여건 파악과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지역 인구정책 근거를 마련해나갈 것”
- 김진오 부위원장, “확대 개편되는 인구전략위원회에서 지자체와 연구기관, 현장의 기업과 주민이 함께 고민한 내용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
- 민형배 시장,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청년과 가족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발전의 모델 만들어갈 것”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 이하 보사연)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진오, 이하 저고위)과 공동주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장 민형배, 이하 광주특별시)가 후원하는 제43차 인구포럼이 8월 27일(목) 광주특별시청 무등홀에서 열린다.

□ 인구포럼은 2014년부터 인구문제를 발굴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제43회 인구포럼은 지역 인구이동과 정주 여건을 주제로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간 출산·양육 지원 중심의 인구정책이 지역 간 인구이동과 정주 여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마련됐다.

□ 포럼은 이지혜 부연구위원(보사연 인구정책연구실)의 사회로 진행되며, 총 2

개 분야로 구성된다.

- 제1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인구이동 및 정주 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마강래 교수(중앙대)가 좌장으로 나서고 3명의 보사연 연구진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성호 연구위원(보사연)이 ‘지역 미혼남녀의 만남’을 ▲김은정 부연구위원(보사연)이 ‘양육 가구 주거 이동과 양육 환경’을 ▲최경덕 부연구위원(보사연)이 ‘중장년층의 이동과 정주 인식’을 발표한다. 이어 박형준 교수(광주대), 이찬영 교수(전남대)가 토론에 참여한다.
- 제2부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정주 현황을 검토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응하여 전입 인구의 정주여건 확보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심층적으로 진행된다. 김신영 교수(한양사이버대)가 좌장을 맡고, ▲이정관 본부장(전남테크노파크)이 ‘지역기업 현장에서 본 일자리, 인재, 정주 여건’을 ▲정지예 대표(맘편한세상)가 ‘기업 근로자들이 느끼는 돌봄 공백과 B2B 민간 돌봄 서비스 사례’ 발표를 한다.
- 이어서 ▲국민패널이 참여해 ‘지역 주민의 삶과 정주 여건’에 대한 실제적인 발표를 진행한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시간을 마련해 윤동열 교수(건국대), 이재희 연구위원(육아정책연), 김지수 연구위원(산업연), 고제이 연구위원(보사연)이 열띤 토론을 벌인다.
- 김진오 부위원장(저고위)은 개회사를 통해 “9월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며 지역이 당면한 문제가 위원회의 정책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인구전략위원회에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 현장의 기업과 주민이 함께 고민한 내용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신영석 원장(보사연)은 축사에서 “지역에 일자리를 늘리고 사람들이 지역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과 주민이 체감하는 정주 여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포럼은 그 소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한편, ‘인구이동 및 정주 실태 조사’의 실시 및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지역 인구정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민형배 시장(광주특별시)은 “인구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제43회 인구포럼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사람과 기업이 함께 모이고 청년과 가족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발전의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환영의 말을 전했다.

- 붙임 1. 『제43회 인구포럼』 웹 포스터 1부.  
2. 행사 자료집 1부 (별도 첨부). 끝.

제43회 인구포럼

떠나는 이유  
머무는 조건



사전 등록 바로가기

2026. 8. 27. (목)

13:00~17:20

광주특별시장 무등홀

인구이동과 정주 여건으로 본  
지역 인구정책의 재설계



PROGRAM

13:00~13:30 사전 등록

13:30~13:50 개회식

사회: 이지혜 부연구위원

개회사 김진오 부위원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축사 신영석 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영사 민형배 시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Session 1 사람의 이동과 정주

좌장: 마강래 교수(중앙대학교)

: 인구이동 및 정주 실태 조사 결과

13:50~14:35

지역 미혼남녀의 만남

▶ 조성호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육 가구 주거 이동과 양육 환경

▶ 김은정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장년층의 이동과 정주 인식

▶ 최경덕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35~15:00

토론

▶ 박형준 교수(광주대학교)

▶ 이찬영 교수(전남대학교)

15:00~15:20

휴식

Session 2 기업이 오면 사람이 오는가

좌장: 김신영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정주의 조건

15:20~16:20

지역기업 현장에서 본 일자리, 인재, 정주 여건

▶ 이정관 본부장(전남테크노파크)

기업 근로자들이 느끼는 돌봄 공백과 B2B 민간 돌봄 서비스 사례

▶ 정지예 대표(맘편한세상)

지역 주민의 삶과 정주 여건

▶ 국민 패널

16:20~17:00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윤동열 교수(건국대학교)

▶ 이재희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 김지수 연구위원(산업연구원)

▶ 고재이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17:00~17:20

폐회

공동 주최

전남광역시  
인구정책심의회

KIH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